

기독교세계관으로 조명하는 유아 세계시민교육

유재경 (안산대학교 부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기독교 세계시민교육의 개념
- III. 기독교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요소와 핵심역량
- IV. 기독교 유아세계시민교육의 적용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8.42.04>

• ABSTRACT •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with the Perspectives
of the Christian World-view

Prof. You, Jaekyung (Ansan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concepts and core competencies of Christia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examines the application of Christia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The core competence of the Christian Global Citizenship was derived from non-normality, worldliness, responsibility (as light and salt), love (hospitality), and practice. These five core competencies are composed of three dimensions. One dimension is Christianity identity, non-normality and worldliness, second dimension is love (hospitality), and third dimension is practice. Christia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is developed from the third dimension to the first dimension by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young children. Therefore, by observing and learning the third dimensional characteristics from both the parents and teachers, the young children can develop towards the second dimensional characteristics which is love and hospitality, and finally moving towards the first dimension to build an identity as Christian Global Citizen.

Key word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Public Faith, Competency, Christian World View

I. 들어가는 말

맥루한(McLuhan)은 1968년에 미래사회가 기술과 미디어의 발달로 온 세계가 한 마을 사람들처럼 왕래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의미로 지구촌(Global Villag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지구촌이란 단어가 만들어진 지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우리는 지구촌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2018년 올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로 영향을 주고 있다. 한 국가 내에 한 지역 문제가 전 세계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매일 일상에서 경험하게 된다. 우리나라 남북문제의 경우를 살펴봐도 남한과 북한 두 당사자 간의 관계 회복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가 함께 협력해서 풀어가야 하는 문제이다.

이렇게 가까워진 지구촌 사회는 지구 온난화, 자연 훼손, 자원고갈, 부의 불균형, 기아와 식량부족, 인권 유린 등과 같이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한 국가가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류 생존과 관련된 문제들이 증가하면서 한 사람의 정체성을 한 국가의 국민으로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넘어선 인류를 공동체로 인식하고 인류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라보는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이나 소속집단, 국가라는 제한적 시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인류 공동체에 대해 연대의식을 갖고 협력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세계시민의 정체성이다.

세계시민교육이란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바라보고 전 지구적인 시각으로 세계의 발전과 안전, 평화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추는 교육이다.¹⁾ 동시에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세계의 어려운

1) 유재경, “유아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연구,” 『유아교육 보육행정연구』 제12권 4호 (2008), 297.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조가 없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증가하면서 다음 세대들이 세계시민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세계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길러내는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2012년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글로벌교육 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 발표를 통해 ‘모든 아동 취학’, ‘교육의 질 향상’, ‘세계시민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를 계기로 세계시민교육은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관심주제가 되었고, 이어서 한국은 2014년 글로벌교육 협력구상(GEFI)의 지원국그룹(Champion Country)이 되었다.²⁾ 2015년 인천에서 개최된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에서는 2016~2030년까지 글로벌 교육의제로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을 강조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세계시민교육을 범교과목으로 추가하고, 교육부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PCEIU)은 세계시민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2015년에 395명, 2016년에 730명, 2017년에 748명의 학교 현장 세계시민 교육 선도 교사를 선발하였다.³⁾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아교육분야에서는 한국에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2000년 후반에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 ‘유아세계시민교육 활동자료집’을 출간하였다. 유아교육분야가 세계시민교육의 초기 연구로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⁴⁾ 이 자료집에서 세계시민교

2) 교육부, 우리나라글로벌교육협력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15번째 지원국그룹(Champion Country)이 되다. 교육부홈페이지내 보도자료.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9&lev=0&statusYN=C&s=moe&m=02&opType=N&boardSeq=56487> (2018년 10월 18일 검색).

3) 박순용, 강보라,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들의 현장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국제이해교육연구』 제12권(2017), 51.

육의 개념을 “전 세계인에 대해 공동체적인 시각을 갖고, 세계인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키우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⁵⁾ 이 개념은 현재 이루어지는 세계시민교육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며 ‘유아세계시민교육 활동자료집’은 실제 현장 적용을 위한 실행 연구가 이루어진 것에 의의가 있다.

유아기는 사회관계에 대한 학습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세계시민교육이 유아기에 시작되어야 한다. 유아기에 세계시민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유아기에 형성된 가치와 태도, 기술은 살아가면서 이후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⁶⁾ 또한 만 3세 유아도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성별이나 인종, 장애 등에 대한 초보적인 선입견을 보일 수 있고, 5~6세는 사회계층과 문화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내면화할 수 있다.⁷⁾ 이러한 발달적 특징을 고려할 때 유아들이 세계가 공동체라는 감각을 갖도록 도와주고,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고, 세계의 번영과 안녕을 위한 세계시민으로 지식과 태도를 형성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세계시민교육의 의미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유아기의 교육이 지식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세계시민교육의 목적은 인류가 지구적 공동체를 추구하고, 세계 여러 곳의 가난, 전쟁, 질병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류가 함께 노력하도록 다음세대를 길러내는 교육이다. 이러한 의미를 살펴볼 때 세계시민의

4) 김선정, 주기연, 김영환, “학교교육과 관련된 세계시민교육 연구경향: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활용하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7권 15호(2017), 211.

5) 교육과학기술부, 『종일반 특성화교육과정운영을 위한 유아세계시민교육』. 교육과학기술부, 2008, 11.

6) 양시내, 『유아 시민의식 함양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40-41.

7) Carter, M & Curtis, D./ 이영애, 이연승, 정진, 조화연, 박현주, 이현숙, 임원식, 유준호 역, 『반편견 교육을 위한 유아 교사 교육의 새로운 접근』 (서울: 창지사, 2001), 59-60.

개념은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유사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 세계의 평화가 깨진 상태가 되었다. 기독교인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로서 '이미(already)'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not yet)'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의 간극을 극복하고 깨어진 평화를 회복하는 책임을 갖는다.

현재 한국교회와 기독교인은 개인 구원과 행복추구 차원의 신앙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웃과 사회에 대한 공동체적 관심이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기독교인에게 약속하신 복은 세속적 의미의 행복이 아니며 기독교인은 개별적이고 상호 배타적인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기독교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공동체적 소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정체성은 개인 차원에 머무를 수 없으며 세계시민으로서 전지구적 시각을 가지고 세계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하고 노력하는 세계시민의 정체성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세계시민교육에서 번영과 행복이 물질적이고 경제적 효용성과 마음과 정서의 행복의 개념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대조적으로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복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영적이고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다시 말하면, 세계시민교육에서 말하는 전 세계의 번영과 안녕의 개념이 기독교인들이 의미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의미에서 기독교 세계시민교육을 조명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과 함께 기독교인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유아교육현장에 어떻게 담아 낼 것인지 이론적, 실제적 고민을 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의 논의와 쟁점을 살펴보고 기독교세계관으로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세계관으로 조명하는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은 무엇인가? 둘째, 기독교세계관으로 조명하는 세계시민의 핵심역량은 무엇인가? 셋째, 기독교세계관으로 조명하는 유아 세계시민교육의 적용 시사점은 무엇인가?

II. 기독교 세계시민교육의 개념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해서 다양한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었다. 국제 이해교육(International Understanding),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Sustainable Development),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 민주시민교육(Democratic Civic Education), 평화교육(Peace Education), 인권교육(Human right Education)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다양한 용어 중에서 다문화교육, 국제이해교육,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의 개념은 중첩되는 개념이지만, 서로 다른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먼저 다문화교육이란 한 국가 내에서 성별, 종교, 인종, 민족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 받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지식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이다.⁸⁾ 다문화교육은 주로 공간적으로 한 국가 내에서 다양성과 존중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학습자들이 존중과 관용의 태도를 가지고 행동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것은 ‘한 국가 내’라는 한계로 인해 지구촌 내에 일어나는 범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고 전 세계의 안녕과 번영을 추구하는데 한계가 있다.⁹⁾

국제이해교육은 다문화교육보다 공간적으로 더 넓은 의미를 가진다. 국가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평화로운 관계를 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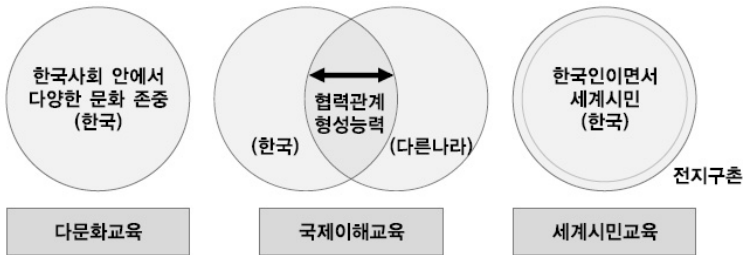
8) 장인실, “미국 다문화 교육과 교육과정,” 『교육과정연구』 제26권 4호(2006), 29-30.

9) 유재경, “유아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연구,” 『유아교육 보육행정연구』 제12권 4호(2008), 297.

도록 노력하는데 초점을 둔다. 국제이해 교육은 다문화교육이 가지고 있는 한 국가 안이라는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세계를 볼 수 있는 태도와 지식과 태도를 가질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국가 간의 경계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¹⁰⁾ 국가 간의 이해 증진을 통해서 국가 간의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국제이해교육은 다문화교육과 같이 한 국가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전제하여 다른 나라와 협력하도록 교육한다.

세계시민교육은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과 달리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선 교육을 추구한다.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세계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범지구적 시각을 가지며, 인류를 공동체로 인식하고 세계의 안녕과 번영에 대해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다. 또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고 협력하여 세계를 변화시키도록 노력하도록 교육이다.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기 쉽게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다문화교육,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의 개념 11)

10) 위의 논문, 297.

11) 교육과학기술부, 『중일반 특성화교육과정운영을 위한 유아세계시민교육』 (교육과학기술부, 2008), 10.

다문화교육, 국제이해교육 이외에 세계시민교육과 유사한 개념으로 자주 언급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는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이란 모든 사람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지향하는 교육이다.¹²⁾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이 세계의 안녕과 번영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갖기 때문에 두 용어의 개념적 차이가 모호하다. 김영순, 정소민, 윤영화는 이러한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개념의 연계 방식에 대해 전문가 9명과 심층면접을 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모두 ‘세계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것이고, 두 개념 모두 평화, 인권, 민주주의, 정의 다양성, 지속가능 등을 다룬다. 그러나 학습자에 대한 목표, 강조점과 실현방식에서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다. 첫째, 학습자에 대한 목표 면에서 볼 때,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은 실천과 행동을 강조하는데 반해 세계시민교육은 가치형성과 역량강화를 강조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은 시간적 개념인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조하지만 세계시민교육은 전 세계의 공동체의식 및 연대의식을 강조한다. 셋째, 실현방식 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은 절제나 제한을 갖는 엄격한 규제나 개입을 전제로 하지만, 세계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방식을 강조한다.¹³⁾ 이러한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의 개념적 특징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 <표 1>와 같다.

12) 김영순, 정소민, 윤현희,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연계 방식에 관한 탐색적 논의,” 『중등교육연구』 제64권3호(2016), 524-525.

13) 위의 논문, 529-533.

〈표 1〉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의 개념적 특징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추구하는 목적	세계의 안녕과 번영	
내용	평화, 인권, 민주주의, 정의, 다양성, 지속가능	
학습자 목표	가치형성과 역량강화	실천과 행동
강조점	공동체 의식 및 연대의식	시간개념인 안정성과 지속성 강조
실현방식	민주주의적 방식	엄격한 규제나 개입 전제

위와 같이 세계시민교육이 지속가능한 발전교육과 구별되는 중요한 차이점은 전 지구적 시각을 가지고 인류에 대해 ‘공동체 의식’으로 볼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의 목표는 세계가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시민교육은 지구적 공동체를 추구하고, 세계 여러 곳의 가난, 전쟁, 질병 등의 문제가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로 정의하며 인류공동체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¹⁴⁾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세계시민의 개념은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유사한 많은 부분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해 세계는 평화가 깨진 상태가 되었다. 이사야 65장에 나타난 회복된 세계의 모습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도래될 세계이다. 기독교인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already)’ 와 ‘아직(not yet)’ 사이에 있는 간극을 극복하는 책임을 갖는다. 즉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소명 받은 자로서 전지구적 시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깨어진 세계

14)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글로벌시민교육: 새로운 의제』. 서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4, 16.

의 여러 문제들을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점에 있어 세계시민과 차이가 있지만, 깨어진 세계의 회복이라는 점에서는 기독교인과 세계시민의 지향점이 유사하다.

기독교인은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그리스도 통치권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는 개인의 경건생활에만 머물지 않고 총체적인 삶의 전 영역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자이다. 기독교인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이다. 이는 Bonhoeffer의 비범성과 세상성의 개념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Bonhoeffer는 기독교인은 비범성과 세상성을 지닌다고 했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인 비범성을 지닌다. 동시에 그리스도를 닮은 기독교인은 타인을 위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존재하는 세상성을 갖는다.¹⁵⁾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변화를 이끌어가는 자들이다. 기독교인은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내는 사람이다.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체사로 드리는 삶이고, 누룩과 겨자씨와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다. 기독교인은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물질주의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경시되고, 환경의 문제, 인권문제 등과 같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변화를 이루어가는 변혁자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세상을 향해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질서의 회복자로 부름을 받았다. 프릴러-야겐토이펠은 Bonhoeffer 신학을 분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타락한 인간이 죄에서

15) Bonhoeffer, D./손규태, 이신건 역,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의 제자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173-175, 306-317.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이웃을 위해 책임 있는 삶아야 한다고 하였다.¹⁶⁾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만 인간은 참 자유를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안에서만 자기의 가치와 존재 이유를 발견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내어 주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한 기독교인은 타자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내어주는 ‘타자를 위한 인간의 자유’를 실천할 수 있다.

“자유로운 존재는 곧 ‘타자를 위해 자유로운 존재’이다. 그 이유는 타자가 나를 자기에게 속박하였기 때문이다. 단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나는 자유로운 것이다... 자유란 내가 나의 전유물처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통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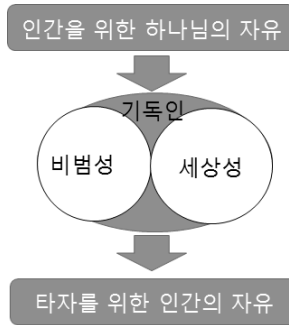
다시 말하면, 예수그리스도처럼 타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의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이것은 예수그리스도가 우리를 환대하듯 우리가 타인을 환대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 타인과 무관한 존재로 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자발적 방해받으며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Bonhoeffer는 “타자를 향한 지향성 속에서” 인간의 피조성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하였다. 인류의 깨어짐의 회복은 성육신을 인식하는 기독교인이 타인을 향한 자유를 구현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할 때 이루어진다. 기독교 세계시민의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한 인간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비범성을 지니게 되며 동시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소명을 갖고 세상을 회복하는 사명을 가진 세상성을 지니

16) 고재길, “자유와 기독교사회윤리적 함의에 관한 연구 - 디트리히 본회퍼의 현해를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제15집(2018), 47.

17) 위의 글, 51.

게 된다. 이러한 기독교인은 타자를 위한 자기의 자유를 타인으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한다. 이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타자를 위한 인간의 자유의 구현과정

하지만, 현재 기독교인들은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책임 수행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기독교는 공적인 영역에서는 배제된 상태로 개인 신앙으로 취급되어지고, 개인적 신앙과 공적인 신앙이 다른 이원론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현재 기독교인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하였지만 ‘타자를 위한 인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라고 질문을 해보게 된다.

기독교인이 개인과 교회의 삶을 넘어서서 사회생활 전반에 하나님의 나라 실현을 추구하는 것을 공적신학이다. 공적신학은 사적영역과 공적영역 모두에서 신앙의 통찰력으로 세상과 개인의 문제를 바라보고 폭력과 악을 제어하고, 이웃과 함께 협력하여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¹⁸⁾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 기독교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과

18) 조무성, “공적신학 관점의 건강도시와 살롬커뮤니티의 형성 - 성남시 대형교회의 사례 분석,” 『신학과 실천』 제38집(2014), 6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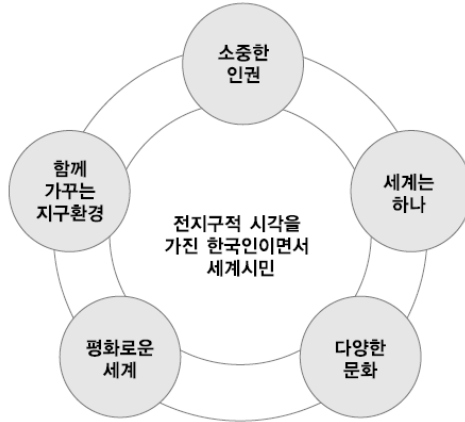
함께 비기독교인을 포함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구현인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통하고 실천하는 신학이다.

세계시민교육에서 말하는 세계와 안녕과 번영은 살림이 도래한 상태로 볼 수 있다. 기독교인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와 난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간을 위한 자유”를 체험한 비범성과 세상성을 가진 기독교인이 인류를 공동체로 바라보며 타인을 위한 자유를 실현해가는 것이 기독교 세계시민교육이라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세계시민교육은 기독교인으로 비범성과 세상성을 지닌 기독교인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과 세계의 시대적 부름과 문제에 자신의 편리함과 유익함을 내려놓고 전 세계와 한국에 하나님의 나라인 살림을 이루기 위한 책임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다.

III. 기독교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요소와 핵심역량

세계시민교육은 전 지구적 시각으로 바라보며 세계시민으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전 지구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인류가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가고 사회를 변화시켜가도록 노력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요소 등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되어 왔다.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간한 ‘유아세계시민교육활동자료’에서 세계시민교육 핵심내용요소를 소중한 인권, 세계는 하나, 다양한 문화, 평화로운 세계, 함께 가꾸는 지구환경의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이러한 내용요소에 따라 유아세계시민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그림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3) 세계시민교육 내용요소¹⁹⁾

2015년 유네스코에서 제시하는 세계시민교육은 지금까지 다문화, 인권, 평화와 같이 내용영역에서 벗어나 인지, 사회·정서, 행동으로 학습의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 세계시민교육 추구하는 인간상은 “지식정보와 비판적 문해력을 갖추고, 풍부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며, 윤리적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이다. 이는 세계시민교육을 학습자 중심에서 바라보고 인지적인 측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 이러한 교육의 내용은 현실과 밀접하게 연계되고 학습자의 삶과 맞아 있어야 하며, 학습의 인지적·비인지적 측면을 모두 중시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은 시민이 생산적인 삶을 영위하고 충분한 정보 속에서 사려 깊은 결정을 내리며, 직면한 글로벌 도전과제의 해결을 위해 지역과 세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함양하게 한다.”²⁰⁾

19) 교육과학기술부, 『종일반 특성화교육과정운영을 위한 유아세계시민교육』. (교육과학기술부, 2008), 11.

20)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길라잡이』. (서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5), 15.

세계시민교육이 아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삶의 변화’가 중심을 핵심으로 두고 있다. 유네스코는 세계시민교육을 내용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달성하는 성과, 학습자 특성, 학습주제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의 삶의 변화가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임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학습 성과와 학습자 특성, 학습주제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학습 성과 및 학습자 특성, 학습주제²¹⁾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
주요 학습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는 지역·국가·세계의 이슈 및 다양한 국가와 사람들의 상호연계성과 상호의존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한다. • 학습자들은 비판적 사고력과 분석력을 발달시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는 인권에 기반을 둔 가치와 책임을 공유하며 보편적 인류라는 소속감을 경험한다. • 학습자는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 및 공감, 연대의 태도를 익힌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는 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지역·국가·세계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 • 학습자는 필요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동기와 의지를 기른다.
주요 학습자 특성	지식정보와 비판적 문해력을 갖춘 학습자	풍부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습자	윤리적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 학습자
학습 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국가·세계의 체계와 구조 2. 지역·국가·세계 차원에서 공동체 간의 상호작용과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3. 암묵적 가정과 권력의 역학관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5. 사람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상호연계 방식 6.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개인적·집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천 8.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9. 참여하고 실천하기

연구자는 이러한 세계시민교육 내용을 통해 연계 되는 학습자의 세계 시민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유네스코는 세계

21) 위의 책, 33.

시민교육의 핵심역량으로 ① ‘지식정보와 비판적 문해력을 갖춘 학습자’로 세계가 연결되어 있고, 세계적 시각으로 체계와 이슈를 알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사고와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을 위한 인지적 능력 ② ‘풍부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습자’로 자아정체성과 상호관계성을 이해하고 공감 능력, 다양한 경험 및 관점에 대한 열린 마음,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능력과 같은 사회·정서적 능력 ③ ‘윤리적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 학습자’로 인권보호와 사회적 책무성을 갖고, 지역사회와 세계를 위해 윤리적이고 평화적 생동을 할 수 있는 행동 능력으로 보고 있다.²²⁾

세계시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상호의존성인식, 공감, 책임감, 존중, 실천으로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핵심요소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³⁾

〈표 3〉 세계시민의 특성

세계시민 특성	내용
상호의존성 인식	지구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살아간다는 상호의존성에 대해 이해한다.
공감	빈곤, 불평등, 교육, 사회정의, 물과 식량의 부족, 재난, 갈등, 평화와 같은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와 관련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한다.
책임감	지구촌 문제를 비판적 사고를 통한 균형 잡힌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와 책임감을 가진다.
존중	편견 없는 사고와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차별하지 않는다.
실천	빈곤과 불평등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세계시민교육의 공통된 핵심 역량은 세계의 문제를 인식 차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 구성원으로 함께 해결하는 책임감을 갖고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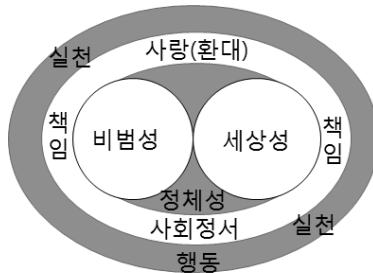
22) 위의 책, 27.

23) 정재현, 『세계시민교육 지도실무: 세계시민교육을 배우는 아이는 나쁘게 되지 않는다』. (서울: 콘텐츠미디어, 2017), 13.

하는 시민성이다.

기독교세계시민의 핵심역량으로 비범성, 세상성, (빛과 소금으로)책임, 사랑(환대), 실천으로 볼 수 있다. 이 5개의 핵심역량은 세 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원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으로 ‘비범성’과 ‘세상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독교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속성인 비범성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으로 보냄 받은 자로 ‘세상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인식이 기독교세계시민의 핵심역량의 가장 근본적인 1 차원이다. 2 차원은 사회·정서적 차원으로 이웃에 대해 사랑과 환대, 책임을 느끼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시민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함께 고통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웃을 향해 사랑과 환대를 하고 책임감을 느끼는 것으로 이웃에게 지속적으로 방해를 받는 것이고, 나의 자유를 타인에게 내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해 속에서 ‘타인을 향한 자유’가 진정한 기독교시민의 자유이다. 3 차원은 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랑과 연민을 실천하는 것이다. 함께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아감(living well together)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독교세계시민의 핵심역량의 3 차원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기독교세계시민의 3차원

이러한 기독교세계시민의 3차원 역량 실천한 구체적 사례가 한 도시를 변화시킨 매튜바넷 목사의 드림센터이다.²⁴⁾ 드림센터의 매튜바넷 목사는 마약과 범죄가 성행한 미국 에코파크지역에서 기독교인으로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사역을 시작했다. 처음부터 매튜바넷 목사가 이 사역의 방향을 알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시작되었다. 기독교 세계시민의 1차원인 기독교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비범성과 세상성을 깨닫는 '기독교세계시민'의 정체성의 인식이 이 사역의 시작점이었다.

매튜목사는 지역내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멕시칸식당, 차이나타운, 공원 카페 등으로 가서 찾아가 만나는 사역을 하였다. 기독교세계시민의 사회·정서 2차원인 타자에 대한 연민과 사랑, 환대의 마음을 갖고 함께 하기 시작하였다. 타자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함께 살아가고 자신의 자유를 타인을 위해 내어 주었다.

사역이 진행되면서 매튜바넷 목사는 타자의 필요를 알게 되고, 그 필요와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해 3차원인 행함이 시작되었다. 이웃 사람들이 거처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위해 매튜바넷목사는 공간을 찾기 시작했고, 수녀원이 운영하는 병원을 대여하여 공간을 제공하였다. 현재 드림센터는 지역 노숙자 공동체, 청소년, 갱단 단원, 약물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미혼모 등 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은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200개가 넘는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섬기고 있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거리를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대피소와 비상연락처 등을 제공하고, 재할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누가 후원하는지 모르지만

24) 뉴스앤조이, 지역사회와 화합하는 미국의 젊은 교회 '넘버 10'.

<http://www.newsno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94> (2018년 10월 24일 검색).

매주 푸드트럭으로 음식이 공급되고 있는데 후원이 끊어져 음식을 공급을 못하는 경우가 없었다. 성도들은 주말에 장을 볼 때 자신이 사는 물건 하나를 더 사서, 지역사회에 나누어 주고 있다. 드림센터는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찾아가서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은 매주 갭단 청소년들과 농구를 한다. '메트로 키즈'는 길거리 주일학교로 아이들이 있는 거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실제로 갭단이 지켜보는 곳에서 '메트로 키즈' 주일학교 교사는 아이들에게 갭단에 가입하지 말고, 총과 마약에 손대지 말도록 교육하고 있다. 10대 노숙자 사역으로 드림하우스 안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예배 안에서 미디어와 영상에 봉사하도록 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에코파크지역은 미국 내에서 가장 살기 좋은 50대 도시 중 하나로 변화되었다.

위의 사례는 기독교세계시민의 자신 정체성 인식에서 비롯되어 타자에 대한 사랑과 연민과 책임, 그리고 이것이 행함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 세계시민교육의 목적인 진정한 전 세계의 안녕과 번영이 기독교세계시민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IV. 기독교 유아세계시민교육의 적용

기독교세계시민의 핵심역량으로 비범성, 세상성, (빛과 소금으로)책임, 사랑(환대), 실천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은 3차원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유아는 성인과 다른 발달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아에게 적합한 세계시민 핵심역량 3차원의 적용이 필요하다.

세계시민교육은 사회관계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인 유아기에 시작되어야 한다. 유아기는 자아개념의 기초가 형성

되고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관점과 타인관점에서 자신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²⁵⁾ 유아기에 형성된 가치와 태도, 기술은 살아가면서 이후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만 3세경 유아도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성별이나 인종, 장애 등에 대한 초보적인 선입견을 보일 수 있고, 5~6세는 사회계층과 문화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내면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²⁶⁾ 이러한 발달적 특징을 고려할 때 유아들이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고 사람을 환대하고, 인종이나 지역과 나라에 상관없이 같은 인간임을 알고 존중하며, 서로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태도와 실천력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시민교육은 유아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교육내용의 선정이 필요하다. 유아들이 세계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세계시민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²⁷⁾ 유아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하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아기는 전조작기 사고특성을 가지고 있어 추상적인 종교적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 시기의 유아들의 믿음은 직관적이고 투사적이며 논리적이지 않고 감정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²⁸⁾ 유아기의 믿음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불신, 성실,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성장한다.²⁹⁾ 유아들은 양육자나 교사들의 언어와 행동,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다.

25) 김규수, 박승순, 권소영, “유아의 정서지능과 자아개념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제8권 1호(2003), 256.

26) Carter, M & Curtis, D./ 이영애, 이연승, 정진, 조화연, 박현주, 이현숙, 임원식, 유준호 역, 『반편견 교육을 위한 유아 교사 교육의 새로운 접근』 서울: 창지사, 2001, 5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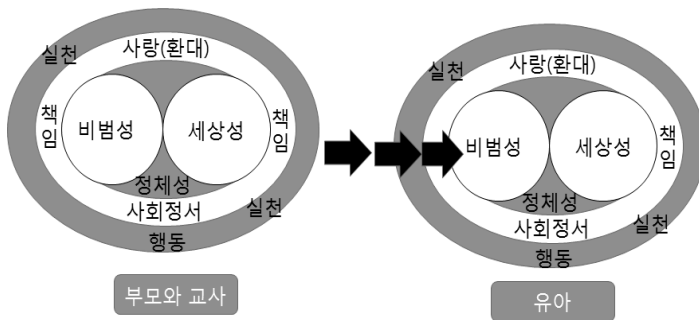
27) 유연옥, 박인숙, “3-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서의 세계시민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제15권 4호(2014), 476.

28) 한춘기, “교육을 통한 신앙발달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제1호(1996), 304.

29) 신미애, 『어머니의 신앙성숙도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아동의 자아

유아의 신앙은 부모와 교사의 신앙적 삶과 행동을 보면서 발달해 간다.

기독교유아세계시민교육은 유아의 발달적 특성 때문에 청소년들과 성인의 접근방법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기독교세계시민의 발달방향은 성인의 경우 그리스도와 만남으로 비범성과 세상성을 갖는 기독교세계시민 정체성의 1차원에서 시작하여 3차원으로 변화되게 된다. 하지만, 유아는 추상적 사고가 어렵기 때문에 부모와 성인의 3차원적인 행동을 보면서 3차원의 행동을 하게 되고 성장해가면서 2차원의 사랑과 환대, 1차원인 정체성의 순서로 발달해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의 기독교세계시민으로서의 실천하는 행동을 보고, 유아가 그 행동을 모방하며 실천해가면서, 2차원 단계인 사회·정서 부분에 내면화 되어 간다. 이러한 내면화가 청소년 시기에 1차원 단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기독교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부모와 교사의 세계시민으로서 행동하는 모습을 유아들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성인의 기독교 세계시민의 발달과정과 유아의 세계시민발달과정의 상호연관성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성인 기독교세계시민이 유아 기독교시민으로 발달에 미치는 3차원 순서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충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1.

전조작기 아동은 환경 속에서 직접경험과 감각을 통해서 학습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세계시민과 관련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5>와 같이 Collins³⁰⁾가 제시한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일상생활 행동과 유네스코가 제시한 세계시민교육 핵심영역과 연결해 보았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유아들은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고 타인을 위한 자유로 실천하는 것을 실행해 봄으로써 기독교세계시민의 토대를 만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면, 물건을 서로 가지려고 다투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 과정에서 서로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부분을 배우게 된다. 때로는 상대방과 행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포기해야하는 것이 있음을 일상에서 배울 수 있다.

<표 4>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핵심개념 영역내용에 따른 일상행동의 예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핵심개념영역		세계시민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일상 행동 예시 ³¹⁾
영역	내용	
인지적 영역	지역사회·국가·범지역·세계의 이슈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 및 사람들 간의 상호연계성·상호의존성에 대한 지식, 이해, 비판적 사고를 습득한다.	- 규칙이 공평하지 않다고 때를 부린다(인권) - 서로 수용 가능한 문제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협상한다(견해에 대한 의식) - 의사결정에 미치는 어른의 힘 혹은 연령에 따라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는 것(유아에게는 안 되지만 아동에게는 허용되는 것)을 발견한다(권위와 상황인식)
사회·정서적 영역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 연대 및 공감, 가치와 책임을 공유하여 인류애를 함양한다.	- 때때로 성적 혹은 인종적 편견이 담긴 이름을 부른다(편견) - 놀이에서 고의로 다른 사람을 따돌린다(차별)
행동적 영역	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지역·국가·세계적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	- 물건을 서로 가지려 다툰다(자원배분) - 싸운다(평화와 갈등) - 서로 나누어 쓰고 함께 협동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방법을 발견한다(상호의존)

30) Collins, M./박명순, 김현경 역, 『아동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서울: 학지사, 2012), 19.

31) 위의 책, 19.

이와 같이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유아 세계시민교육을 유아교육현장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유아교사가 먼저 기독교세계시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기독교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의 바탕을 두고 환대와 책임감을 갖고 실제로 행해야 한다. 교사의 기독교세계시민으로서의 이웃을 환대하고 책임 있게 행함을 통해 유아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유아들은 추상적인 비범성과 세상성의 의미를 알기 어렵다. 비범성과 세상성의 의미를 알고 기독교세계시민으로 정체성을 가진 교사가 전지구적 시각을 갖고 환대의 마음으로 행할 때, 이것을 보는 유아는 세계시민의식이 내면화될 수 있다.

둘째, 기독교 유아세계시민교육은 교과영역의 내용처럼 한 영역 활동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교육과정 안에서 녹아들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육 그 자체가 세계시민교육이어야 한다. 기독교 세계시민교육은 과학교육이나 수학교육, 음악교육과 같은 교과의 지식과 기술, 태도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 교육과정에 기독교 유아세계시민으로 정체성과 사회정서, 행동 할 수 있도록 기독교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이 모든 활동에 담겨있어야 한다.

셋째, 기독교 유아세계시민교육은 인지적 활동만이 아니라 알고, 공감하고, 실천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친구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해 볼 수 있는 활동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어려움을 해결해 과정에서 유아가 다른 유아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끼고 행하도록 도울 수 있다.

넷째, 기독교 유아세계시민교육은 유아가 친숙한 환경에서 출발해야 한다. 학급내의 공동체 의식에서 학급 간 공동체 의식, 같은 유치원에서

의 공동체 의식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세계로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유치원에서 다른 학급을 방문하여 연계하는 경험을 통해서 서로의 이해를 넓히며 같은 주제를 가지고 협력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다섯째, 교실에 지구본이나 세계지도를 게시(Collins, 2012)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유아들이 옆에 있는 유아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에 있는 유아와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아들이 일상생활에서 다른 나라의 사건에 듣게 되는 경우에 함께 지도를 찾아보면서 같은 인류의 한 사람임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V. 나가는 말

본고에서는 기독교 세계시민교육의 개념과 기독교 세계시민의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도출한 개념을 기독교 유아세계시민교육의 적용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는 기독교 세계시민교육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와 난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간을 위한 자유”를 체험한 비범성과 세상성을 가진 기독교인이 인류를 공동체로 바라보며 타인을 위한 자유를 실현해 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기독교세계시민의 핵심역량으로 비범성, 세상성, (빛과 소금으로)책임, 사랑(환대), 실천으로 보았다. 이 5개의 핵심역량은 3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차원은 기독교 정체성으로 비범성과 세상성이고, 2차원은 사랑(환대), 3차원은 실천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다.

기독교유아세계시민교육은 유아의 발달적 특성에 의해서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들과 성인의 접근방법과는 다른 방향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성인은 비범성과 세상성을 갖는 기독교인으로 정

체성인 1차원에서 시작하여 3차원으로 변화되게 되지만, 유아는 부모와 성인의 3차원적인 행동을 보면서 3차원의 행동을 하게 되면서 2차원의 사랑과 환대, 1차원인 정체성의 순서로 발달해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의 기독교세계시민으로서의 실천이 유아의 기독교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독교 유아세계시민교육을 유아교육 기관 현장에 적용할 때 주안점으로 다섯 가지를 제안하였다. 1) 기독교 유아세계시민교육의 시작은 교사에게서 시작된다. 2) 기독교 유아세계시민교육은 교육 그 자체가 세계시민교육이어야 한다. 3) 기독교 유아세계시민교육은 인지적, 사회·정서적, 실천적인 영역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4) 기독교 유아세계시민교육은 친숙한 환경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5) 세계지도나 지구본을 제시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친숙하도록 환경적으로 준비해 준다.

본 연구는 세계시민교육을 기독교시각으로 조명해 보았다. 기독교세계시민으로 자신의 비범성과 세상성 인식에서 출발하여 타자에 대한 사랑과 연민과 책임, 그리고 이것이 행함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보여 주었다. 이 연구를 통해 기독교인은 개인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실천하는 자이고, 인류공동체에게 자신의 자유를 줄 수 있는 기독교인을 통해 세계의 난제들이 증가되는 시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에 기독교세계시민교육 적용을 한다면 유아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인류에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을 보게 된다.

참고문헌

- 고재길, “자유의 기독교사회윤리적 함의에 관한 연구 - 디트리히 본회퍼의 현해를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제15권(2018), 41-68.
- 교육과학기술부, 『종일반 특성화교육과정운영을 위한 유아세계시민교육』, 교육과학기술부, 2008.
- 교육부, 우리나라글로벌교육협력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15번째 지원국그룹(Champion Country)이 되다. 교육부홈페이지내 보도자료,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9&lev=0&statusYN=C&s=moe&m=02&opType=N&boardSeq=56487> (2018년 10월 18일 검색).
- 김규수, 박승순, 권소영, “유아의 정서지능과 자아개념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제8권 1호(2003), 253-270.
- 김선정, 주기연, 김영환, “학교교육과 관련된 세계시민교육’ 연구경향: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활용하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7권 15호(2017), 207-228.
- 김영순, 정소민, 윤현희,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연계 방식에 관한 탐색적 논의.” 『중등교육연구』 제64권 3호(2016), 521-546.
- 뉴스앤조이, 지역사회와 화합하는 미국의 젊은 교회 ‘넘버 10’.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94> (2018년 10월 24일 검색)
- 박순용, 강보라,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들의 현장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국제이해교육연구』 제12권(2017), 49-88.
- 신미애, 『어머니의 신앙성숙도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충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양시내, 『유아 시민의식 함양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글로벌시민교육: 새로운 의제』, 서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4.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길라잡이』, 서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5.

- 유연옥, 박인숙. “3-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서의 세계시민 교육내용과 교육 방법 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제15권 4호(2014), 465-480.
- 유재경. “유아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연구.”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제12집 4호(2008), 296-315.
- 장인실. “미국 다문화 교육과 교육과정.” 『교육과정연구』 제26집 4호(2006), 27-53.
- 장혜진, “유아를 위한 다문화교육의 새로운 방향성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제14 권 2호(2010), 101-123.
- 정재현. 『세계시민교육 지도실무: 세계시민교육을 배우는 아이는 나쁘게 되지 않는다』. 서울: 콘텐츠미디어, 2017.
- 조무성. “공적신학 관점의 건강도시와 살롬커뮤니티의 형성 - 성남시 대형교회의 사례분석.” 『신학과 실천』 제38권(2014), 679-735.
- 한춘기. “교육을 통한 신앙발달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제1권 (1996), 287-306.
- Bonhoeffer, D./손규태, 이신건 역.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의 제자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Collins, M./박명순, 김현경 역. 『아동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서울: 학지사, 2012.
- Carter, M & Curtis, D./ 이영애, 이연승, 정진, 조화연, 박현주, 이현숙, 임원식, 유준호 역. 『반편견 교육을 위한 유아 교사 교육의 새로운 접근』 서울: 창지사, 2001.

논문투고일: 2018년 10월 31일

심사개시일: 2018년 11월 09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 21일

• 국 문 초 록 •

본 연구는 기독교 세계시민교육의 개념과 기독교 세계시민의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도출한 개념을 기독교 유아세계시민교육의 적용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기독교세계시민의 핵심역량으로 비범성, 세상성, (빛과 소금으로)책임, 사랑(환대), 실천으로 도출되었다. 이 5개의 핵심역량은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차원은 기독교 정체성으로 비범성과 세상성이고, 2차원은 사랑(환대), 3차원은 실천으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기독교유아세계시민교육은 유아의 발달적 특성에 의해서 3차원에서 시작하여 1차원으로 발달하게 된다. 유아는 부모와 성인의 3차원적인 행동을 보면서 3차원의 행동을 하게 되면서 2차원의 사랑과 환대, 1차원인 정체성의 순서로 발달해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서 기독교세계시민교육 적용을 통해 다음세대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인류에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세계시민교육, 유아교육, 공적신학, 기독교세계관, 사랑과 환대, 책임, 정체성
